

중·고등학생의 가정생활 참여도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남·여학생 비교를 중심으로—

최 등 숙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A Study on the Family Life Participation of the Secondary
Students and Related Variables
—Focusing on Comparisons of Male and Female—

Choi, Dong-Sook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mily life participation and to analysis its related variables focusing on comparisons of male and female in the secondary students.

The questionnaire included school environmental variables,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the preference degree of Home Economics, sex role attitudes and the family life participation.

The participants were 60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but the final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559.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is study, fequency, mean, Cronbach's α coefficient, one way ANOVA,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calcul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degree of family life participation was a little higher than middle level. While the highest participation degree was family activities participation, the participation degree of household work,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leisure activities were low.

2)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on the family life participation were the level of living and preference degree of Home Economics for both male and female.

* 이 연구는 1994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진흥재단 해외연구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의 목표 및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정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이들 과업은 대개 주부들에게 위임되어 가정일은 주부의 일이라는 가정하에 누가 하는가, 누가 돕는가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가정은 가족 개인을 단위로 구성되며 이들 가족원의 인적,관리적 하위체계(personal and managerial subsystem)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성장 유지되는 개방 체계(open system)로서, 가족 구성원 각기의 가정활동은 상호 영향력과 관계성을 가지면서 역동적인 가정체계를 유지시켜 나간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들의 가정생활의 참여는 가정체계를 유지, 성장시키는 중요한 활동임과 동시에 가족 공동체적 삶을 위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 가족은 자녀가 자아정체감 형성이나 심리적 독립의 욕구 증가와 같은 발달 단계상에 따른 특수성으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정체계 내 큰 변화와 갈등을 겪고 가족 기능 상의 장애를 보일 수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처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¹⁾

그러나 최근의 한국 교육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입시 위주의 편파적인 교육은 중등학생들의 가정생활 참여에 장애 및 제한이 되고 있으며 이는 가정의 불안정성을 초래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6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95학년도 입학생 부터 가정교과의 남녀 공수가 실시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중·고등학생들의 가정생활 참여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가정과 교육의 방법과 내용 및 방향이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관리행동이나 역할 분담 등에 관해 연구 되어 왔고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가사노동시간, 여가활동, 생활 양식, 생활시간의 관점에서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구 되었으며, 가정과 교육의 측면에서도 가정과 학습내용의 가정생활

활용도,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면에 치중하여 연구되어 왔고 가족체계와 상호작용을 위해 자녀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의 의미에 대한 체계적 관심은 없었다. 따라서 자녀들의 가정내 참여는 간접적인 정보에 의존하였고 성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만 집중되어 왔다.²⁾ 가족 구성원 모두의 참여 및 활동은 가족 체계의 유지 및 성장에 중요하므로 자녀들의 참여 그중에서도 중·고등학생들의 참여를 파악 하는 일은 중요하나 중고등학생들의 전반적인 가정생활 참여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생들의 가정생활 참여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이의 관련변인들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가정생활의 확립과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연구문제 및 제한점

진술한 연구 목적을 위해 중·고등학생들의 가정생활 참여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중·고등학생들의 가정교과 선호도, 성역할 태도, 가정생활 참여도는 어떠한가

2) 관련변인에 따른 가정교과 선호도, 성역할 태도, 가정생활 참여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① 학교환경변인에 따른 가정교과 선호도, 성역할 태도, 가정생활 참여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②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가정생활 참여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③ 가정교과 선호도에 따른 가정생활 참여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④ 성역할 태도에 따른 가정생활 참여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어떠한 관련변인들이 가정생활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상기의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과정에서의 제한점은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 응답에 의존하였고 조사대상이 4개 학교로 임의 표집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자녀들의 가정내 활동에 대한 관심은 가정학이외에도 심리학적, 사회학적, 여성학적 시각에서 관심을 가져왔다. 이들은 왜 가정일을 하는지, 누가 그것을 하는지, 어떻게 보상 받는지, 그것이 후에 자녀의 성장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관련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하여 탐색해 왔다.³⁾

심리학자들은 책임감의 발달, 자아통제, 봉사과 같은 자녀들의 도덕적 성격의 발달 즉, 발달론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 왔다. Harris et al. (1954)은 가정일을 할당받은 자녀들이 타인에 대한 봉사와 책임감을 더 발달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념에 대해 조사 했으나 유의적인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 결과에 근거한 Kohlberg(1964) 연구에서는 부적인 관련이 있다는 상반된 결과로 보고하고 있다.⁴⁾ 그밖에도 자녀들의 가정일과 성취행동 양식과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에서 Smith(1969)는 유의적 상관관계를 발견하여 자녀들의 가정일은 독립심과 책임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⁵⁾

사회학자들은 가족의 노동분담의 측면에서 자녀들의 가정일에 대한 기능적 효과에 대해 관심 가져왔다. Strauss(1962)는 자녀의 사회화(socialization)의 측면에서 어린시절의 가정일의 경험은 미래 자신의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중요하다고 진술하며, Thrall의 연구(1978)도 이를 지지하고 있고, Menninger(1964)는 자녀와 성인의 가정일에 대한 상호참여는 가족의 결속력의 증가에 기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⁶⁾

여성학자들은 가족은 후천적인 성(gender)이 구축되는 최초의 장(場)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이것은 가족의 일이 가족원들 사이에 분배되는 방법에서 비롯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⁷⁾

상기 연구 결과들은 자녀들의 가정일의 참여가 가족이나 자녀 모두에게 중요한 기능적, 통합적, 발달론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시사 하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학교, 지역사회, 직업의 수행에 효과적인 산출을 얻게 되리라고 예측 할 수 있다.

이외에도 Cogle et al.(1982)⁸⁾은 청소년들의 가정생활 경험은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구축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책임감과 가

정생활 기술을 가르쳐 주며 나아가 가족 관계의 질을 향상 시키고 사회화 과정에 기여한다고 보고하며, McHale et al.(1990)⁹⁾도 자녀의 가사노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가정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시간연구의 측면에서 자녀들의 가사노동 시간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관심에서 부터 출발하여 가정생활의 개별적 영역에서 자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 및 수행, 가사노동의 분담정도,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가족 및 중등학생의 여가 활동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가사노동에 대한 부부의 기여는 경제학적 시각에서 연구되어 왔으나 청소년들의 기여가 소홀히 되어 왔음을 지적하면서¹⁰⁾ 자녀들의 가정생산이 G.N.P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고, 자녀의 가사노동은 자녀에 대한 책임감 지도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가족의 중요한 자원이 됨을 강조 하였다.¹¹⁾

이정덕(1991)¹²⁾은 청소년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에서 전기청소년(10-15세)과 후기청소년(16-19세)의 가사노동시간은 각각 평일 21분, 14분 토요일 40분, 32분 일요일 1시간, 55분으로 조사 보고하면서 81년과 90년을 비교할 때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한데 비해 여가활동시간은 증가 하였으며 생활시간구조가 균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구조로 변모되었다고 하였고, 문숙재·강이주(1984)¹³⁾도 청소년의 생활양식유형은 가족중심형이 8.51% 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자녀들의 가사노동 시간에 관한 연구에서 Sanik & O'Neil(1982)¹⁴⁾은 67, 77년을 비교 했는데 남녀 학생 모두 67년 보다 음식준비, 장보기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했으며 특히 여학생들을 음식준비, 설거지, 청소에, 남학생들은 정원 자동차 애완동물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연령이 낮은 여학생들은 청소를, 연령이 높은 학생들은 음식 준비에 더 많이 참여하며, 남학생들은 67년에는 청소, 77년에는 정원 자동차 애완동물 주택관리 등에 더 많이 참여하고, 남학생들은 아버지에 의해 여학생들은 어머니에 의해 수행된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Duncan & Sanik(1991)¹⁵⁾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가사노동에 대한 성고정관념은 나이에 따라 증가 한다고 하였다. O'Neil(1979)¹⁶⁾도 성역할의 변화와 자

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이전 10년 보다 그들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이 다르다고 하였다. Cogle et al. (1982)¹⁷⁾는 청소년(12-17세)을 위한 가사노동으로 음식준비, 설거지, 시장보기, 청소, 주택 자동차 정원 애완동물관리, 세탁물 처리, 의류손질, 가족원의 비신체적 돌보기, 가족원의 신체적 돌보기, 관리 등의 10개 작업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1일 가사작업시간은 64분이며 장보기와 주택 정원 자동차 애완동물 관리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모의 직업유무와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Lovett et al.(1988)¹⁸⁾은 음식준비, 설거지, 장보기, 청소, 주택 정원 자동차 애완동물관리 그리고 전체 가사노동에 대한 자녀의 기여도의 연구에서 성별, 연령, 주부의 고용지위에 따른 차이를 분석 하였으며, 이에 앞서 Cogle & Tasker (1982)¹⁹⁾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참여는 연령, 성, 어머니의 고용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 취업모의 자녀가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 한다고 하였고, Propper(1972)²⁰⁾도 대도시 중·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취업모의 자녀들이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Key & Sanik(1990)²¹⁾도 주부의 고용지위는 자녀들의 가사작업수행시간에 절대적 상대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 하였다.

가사노동이외에 개개인의 여가활동 참여는 성과연령에 따라 다르며 연령이 높은 자녀가 어린 자녀보다 여가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²⁾ 국내연구에서도 학력,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이 증가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²³⁾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이정우, 김규원(1989)²⁴⁾은 가정생활에서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간의 의사소통은 이를 통해 부모 자녀관계가 신뢰와 애정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과 동시에 현대가정의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지적 하면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어머니와 더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가정과 교육분야에서는 주로 가정교과 선호도에 따른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학습내용의 활용도, 그리고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君塚(1984)은 가정생활에 조력하는 남자들은

어린시절에 가사교과를 배운 사람임을 중시 하였고 高橋(1983)는 초등학교 5학년용 대상으로 감자 삶기 실습을 시켜 본 결과 성별 차이는 없었으며 남·녀 학생이 즐겁게 실습하고 가정생활에 적용시켰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다각적인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 하였으며, Nichols et al.(1983)도 주부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중등학교 때 받은 가정과 교육이 가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신현자·김기남(1991)²⁵⁾은 남학생중 51.7%가 고현숙, 김기남(1989)²⁶⁾은 여고생의 31.9%가 가정교과를 좋아하고 있었으며 가정교과의 기호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온성숙·이전숙(1992)²⁷⁾는 학교 교육에서 남학생에게 가정과 교육을 접할 기회가 차단되어 가정생활에 대한 책임감이나 가사작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연구결과 남학생들의 과반수가 가정교과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가정교과를 이수한 남학생들의 가사노동수행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하여 수정 보완한 설문지이며 학교 및 가정환경 변인, 가정교과 선호도, 성역할 태도, 가정생활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가정생활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은 학교환경변인, 가정환경변인, 가정교과 선호도, 성역할 태도로 구성하였다. 학교환경 변인은 성, 학년, 가정교과 이수여부로서 성은 원래 인구학적 변인의 성격이나 여기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한다는 관점에서 학교환경변인에 포함시켰고 가정교과 이수여부는 남학생에 국한하여 조사하였다. 가정환경변인은 형제순위, 부의 학력, 모의 학력, 생활수준, 부의 직업, 모의 직업유무의 6개 변인을 포함시켰다. 가정교과 선호도는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교과를 더 좋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역할 태도는 Osmond과 Martin(1975)²⁸⁾,

Brogan과 Kutner(1976)²⁹⁾의 성역할 태도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한 13문항으로 구성 하였으며,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가정생활참여도는 Sanik(1991), Swaler et al.(1989)³⁰⁾, 최동숙(1988)³¹⁾의 연구를 토대로 5가지 하위영역 즉 가사노동,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여가활동, 가정행사, 가정규칙의 준수 등의 참여도로 구성하였고, 설문내용은 성차에 관련된 문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성 또는 여성 편향적 문항을 가능한 배제하면서 남녀 모두에게 적절한 문항으로 선택하여 구성하였다. 따라서 가사노동 참여는 음식준비, 설거지, 청소, 세탁 및 의류정리, 기구수리, 장보기, 가족 돌보기, 집안정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15문항,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참여는 가족간의 의사소통의 정도와 집안일이나 개인적인 일에서의 자녀들의 의사결정 반영정도를 측정하는 9문항, 여가활동 참여는 가족과 함께 어느 정도 여가생활이나 시간을 공유하는가를 반영한 6문항, 가정행사의 참여는 자녀들의 가정대소사에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5문항, 가정규칙의 준수는 가정의 질서와 가정생활의 안정성에 자녀들이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하여 총 40문항이 구성되었다. 설문방식은 Likert형 5점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상기 설문내용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가정교과선호도 $\alpha = .87$, 성역할태도 $\alpha = .91$, 가정생활참여도에서는 가사노동 $\alpha = .80$,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alpha = .83$, 여가활동 $\alpha = .86$, 가정행사 $\alpha = .77$, 가정규칙의 준수 $\alpha = .77$ 로 신뢰도를 입증하였다.

2.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시 남녀 중고등학생들이며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은평구 소재 4개 중·고등학교를 임의 선정 하였고, 성별 비교를 위해 남학생을 절반씩 표집하였으며, 중3과 고3은 입시관계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조사시기는 '96년 2월 5일~15일에 예비조사를 거쳐 4월 24일~5월 4일에 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지는 중학교 300부(중1. 100부, 중2. 200부) 고등학교 300부(고1 200부, 고2 100부)를 배부하여

자기 기재식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97%인 582부를 회수 하였으나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559부를 본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통계 분석은 다음과 같으며 자료처리를 위해 spss 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 하였고 빈도, 백분율, 평균, 변량 분석, t-검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가정교과선호도와 성역할태도의 상, 중, 하집단의 구분을 위해 총점을 3등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정교과선호도 '상' 집단일수록 가정교과를 더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역할태도 '상'집단은 전통적 태도, '중'집단은 중립적 태도, '하'집단은 진보적 태도를 의미한다. 회귀 분석을 위해 명목 변인에 대해서는 가변수로 전환하여 어머니의 직업 유무는 취업 0, 비취업 1로 처리 하였으며, 생활수준과 父의 학력은 역방향으로 코딩하였으므로 β 값이 -일수록 생활수준이 높고 직업은 더욱 전문성을 갖는 직업임을 의미한다.

IV. 연구 분석 결과 및 논의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표 1)

조사대상 학생들의 학교환경변인인 성별 분포는 비슷하며, 남학생들의 44%는 가정 교과를 배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변인으로서 형제 순위는 남녀 학생 모두 절반 가량이 첫째 자녀이며 1/3정도는 둘째 자녀 이었다. 부모학력은 대부분 고졸 이상, 생활 수준도 대부분 중류 이상이며, 아버지 직업은 행정관리 및 사무직이 많으며 다음으로 관애.서비스 직종에 분포되어 있으며,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가 45% 로서 우리나라 여성취업률 평균치 47%와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가정 환경 변인에서도 역시 남,여학생의 두드러진 차이 즉, 어느 한 집단에 편중되어 있는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 두 집단을 비교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구분	남학생(N=282)		여학생(N=273)		전체(N=559)		
		f	%	f	%	f	%	
학교 환경 변인	학년	중1	54	19.1	43	15.8	98	17.5
		중2	85	30.1	95	34.8	182	32.6
		고1	78	27.7	85	31.1	163	29.2
		고2	65	23.0	50	18.3	115	20.6
가정교과 이수여부	유	124	44.0					
	무	155	55.0					
가정 환경 변인	형제순위	첫째	133	47.2	136	49.8	269	48.1
		둘째	95	33.7	94	34.4	190	34.0
		셋째	36	12.8	37	13.6	76	13.6
		넷째이상	14	5.0	6	2.2	20	3.6
	아버지 학력	국졸	18	6.4	10	3.7	31	5.5
		중졸	21	7.4	17	6.2	38	6.8
		고졸	122	43.3	110	40.3	233	41.7
		전문·초급대졸	19	6.7	17	6.2	36	6.4
		대졸이상	99	35.1	113	41.4	212	37.9
	어머니 학력	국졸	18	6.4	9	3.3	27	4.8
		중졸	49	17.4	33	12.1	82	14.7
		고졸	140	49.6	149	54.6	290	51.0
		전문·초급대졸	9	3.2	14	5.1	24	4.3
		대졸이상	58	20.6	60	22.0	120	21.5
	생활 수준	상	31	11.0	18	6.6	49	8.8
		중상	80	28.4	82	30.0	162	29.0
		중	144	51.1	148	54.2	295	52.0
		중하	22	7.8	19	7.0	42	7.5
		하	3	1.1	2	0.7	5	0.9
	아버지 직업	전문직	22	7.8	27	9.9	49	8.8
행정관리직		69	24.5	60	22.0	132	23.6	
사무직		50	17.7	78	28.6	128	22.9	
판매직		34	12.1	43	15.8	77	13.8	
서비스직		58	20.6	35	12.8	94	16.8	
생산기능직		37	13.1	23	8.4	60	10.7	
어머니 직업 유무	유	133	47.2	119	43.6	252	45.1	
	무	148	52.5	154	56.4	306	54.7	

2. 가정교과 선호도, 성역할태도, 가정생활참여도의 일반적 경향과 관련 변인에 따른 가정생활 참여도의 차이

1) 가정교과 선호도, 성역할태도, 가정생활 참여도의 일반적 경향과 학교환경변인에 따른 차이 <표 2>

중·고등 학생들의 가정교과 선호도, 성역할 태도, 가정생활 참여도의 일반적인 경향과 학교환경 변인인 성별, 학년별, 가정교과 이수 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중·고등학생들의 가정교과선호도는 2.94점으로 중간 수준인데 반하여 남학생은 3.22점 여학생은 2.77점으로 남학생이 높았으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학년 별로는 남녀 학생 모두 중학생이 가정교과를 더 선호 하였는데 이것

은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위주의 수업 때문에 입시와 관련 없는 교과를 등한시 하는데서 기인되는 것이라 판단 된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가정교과를 이수한 학생들이 다소 선호도가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전체 중·고등학생들의 성역할 태도는 2.34점으로 다소 진보적이며 남학생(3.01점)은 여학생(1.86점)에 비해 매우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p < .001$) 학년별($p < .001$)에서 여학생들은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들이 전통적인 태도로 나타났는데 비해, 남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성역할 태도가 중등학생때 부터 이미 남·녀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남성들이 여성들 보다 여성 역할에 대해 더 전통적 태도를 보이며 특히 가정 밖 역할 보다 가정

<표 2> 학교환경 변인에 따른 가정교과 선호도, 성역할태도, 가정생활 참여도의 차이

		가정교과 선호도	성역할 태도	가정 생활 참여도					전체	
				가사노동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여가활동	가정행사	가정규칙의 준수		
				평균 T값	평균 T값	평균 T값	평균 T값	평균 T값		평균 T값
성별	남학생	3.22	3.01	3.30	3.07	2.92	3.27	3.40	3.26	
	여학생	2.77	1.86	3.27	3.30	3.13	3.66	3.63	3.35	
	전체	2.94	2.34	3.29	3.23	3.12	3.69	3.52	3.30	
학년	남	중1	3.70	3.18	3.48	3.24	3.61	4.24	3.66	3.56
		중2	3.04	3.06	3.25	3.06	3.04	3.80	3.41	3.27
		고1	2.94	2.74	3.01	2.94	2.24	3.53	3.24	3.11
		고2	3.00	3.24	3.38	3.31	2.52	3.40	3.34	3.16
	여	중1	2.79	2.27	3.43	3.38	3.47	3.92	3.80	3.54
		중2	3.30	1.97	3.39	3.37	3.35	3.83	3.69	3.47
		고1	2.44	1.60	3.23	3.21	2.93	3.56	3.50	3.26
		고2	2.28	1.75	3.00	3.21	2.79	3.26	3.60	3.12
가정교과 이수 여부	남 학 생	유 무	3.25 3.16	2.91 3.08	3.38 3.23	3.16 3.03	3.06 2.81	3.92 3.57	3.60 3.24	3.37 3.17
			.53 ^{N.S}	-1.78 ^{N.S}	1.96*	1.34 ^{N.S}	2.13*	3.40 ^{***}	3.53 ^{***}	3.22 ^{***}

(학년별은 F값, 평균은 5점 만점)

내 역할 영역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한 Thomas (1975)의 연구 결과가 뒷받침 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교과 이수 여부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이수한 학생들이 다소 근대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들의 가정생활 참여도는 3.30점으로 중간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행사 참여와 가정규칙의 준수 면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p < .05$), 학년 별로는 남·여학생 모두 특히 중학생들의 가정생활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p < .001$). 이것은 중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유대관계나 가정생활에 대한 호응도가 높으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사춘기 이후의 심리적 변화와 입시 위주의 바쁜 학업일정에 쫓겨 가정생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저조해 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가정교과를 이수한 학생들의 가정생활 참여도가 높아($p < .001$) 남학생들의 가정과 교육이 가정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가사노동 참여는 그다지 높지 않을 뿐 아니라 남·녀간 차이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최근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과잉 보호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남·녀학생 모두에서 저학년들의 가사노동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남 $p < .05$, 여 $p < .001$), 가정교과를 이수한 남학생들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p < .05$)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참여도 역시 높지 않으나, 성별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족간 의사소통이 더 원만하고 의사결정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 가정교과 이수 여부, 학년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여가 활동에서는 하위영역별로 볼 때 가장 낮은 점수로 중·고등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더욱 그러하다($p < .01$) 그러나 학년별로는 저학년 특히 중학생들의 참여가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 가정교과를 이수한 남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p < .05$).

가정행사에 대한 참여는 하위 영역중 가장 높은 점수로서 가정생활의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녀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학년별로는 저학년 이 그리고

가정교과를 이수한 남학생들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p < .001$)

가정규칙의 준수 정도도 비교적 높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의 점수가 높아($p < .001$)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가정 규칙의 준수와 협조로 가정체계의 안정성에 더 기여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년 별로는 중학교 남학생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p < .05$) 가정교과를 이수한 남학생들의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p < .001$).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학교환경변인에 따라 가정교과 선호도, 성역할 태도, 가정생활 참여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2)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가정생활 참여도의 차이 (표 3)

가정환경 변인인 형제 순위, 부모의 학력, 생활수준, 부의 직업, 모의 직업유무에 따른 가정생활 참여도의 차이를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가정생활 참여도는 남학생들은 부모의 학력($p < .01$, $p < .001$), 생활수준($p < .001$), 부의 직업($p < .05$)에 따라, 여학생들은 모의 학력($p < .05$), 생활수준($p < .001$)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은 부모의 학력과 생활수준이 높을때, 그리고 부의 직업이 사무·관리·전문직인 경우에, 여학생은 모의 학력이 높고 생활 수준이 중상 이상일 경우 가정생활 참여도가 높았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가사노동 참여는 남학생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여학생은 생활수준($p < .01$), 모의 직업유무($p < .05$)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여학생의 경우는 생활수준에 따라서 다양하였으나,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 가사노동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참여에서 남학생은 형제순위($p < .05$), 생활수준($p < .01$)에 따라, 여학생은 생활수준($p < .001$), 부의 직업($p < .05$), 모의 학력($p < .01$)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의 경우 장남이고 생활수준이 높을때, 여학생의 경우는 부의 직업에 따라 다양하였고 생활수준이 중상 이상일 때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에서 남학생은 형제순위($p < .01$), 부모학력($p < .001$), 생활수준($p < .001$), 부의 직업($p < .01$)에 따라, 여학생은 형제순위($p < .001$), 부의 학력($p < .05$), 모의 학력($p < .001$), 생활수준($p < .001$), 부

의 직업($p < .01$)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의 경우 막내이고, 부모학력이 대졸 이상일 때, 생활 수준이 중상 이상일 때, 부의 직업이 사무·관리직일 때 여가 활동 참여가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역시 막내이고, 부·모학력이 높으며, 생활수준이 중상 이상일 때, 부의 직업이 전문직일 때 여가활동 참여가 높았다.

가정행사 참여에서 남학생은 부·모의 학력($p < .001$), 생활수준($p < .01$), 부의 직업($p < .001$)에 따라 여학생은 형제 순위($p < .05$), 생활수준($p < .01$)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학력과 생활수준이 높고, 부의 직업이 사무·관리직일 때 가정 행사에 대한 참여도가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는 만이 이고 생활수준이 중상 이상일 때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규칙의 준수에서 남학생은 생활수준($p < .001$), 부의 직업($p < .05$), 모의 직업 유무($p < .05$)에 따라, 여학생은 생활수준($p < .01$), 모의 학력($p < .01$)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의 경우 생활수준이 높고, 부의 직업이 사무, 관리, 전문직일 때, 어머니가 직업이 없을 때, 여학생의 경우 역시 생활 수준이 높고, 모의 학력이 전문대, 대졸일 때 가정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교과 선호도에 따른 가정생활 참여도의 차이 (표 3)

가정교과 선호도에 따른 가정생활 참여도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남학생은 가정교과를 선호할 때 가사노동($p < .001$), 여가활동($p < .05$), 가정행사($p < .001$), 가정규칙의 준수($p < .01$) 및 전체 가정생활 참여도($p < .001$)가 높았으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영역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여학생은 가정교과를 선호할 때 가사노동($p < .001$),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p < .001$) 여가활동($p < .001$), 가정행사($p < .05$), 가정규칙의 준수($p < .05$) 및 전체 가정생활 참여도($p < .001$)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학교교육이 가정생활에 특히 가정생활과 직접관련 되는 교과인 가정교과 교육이 가정생활에 반영됨을 입증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4) 성역할 태도에 따른 가정생활 참여도의 차이 (표 3)

성역할태도에 따른 가정생활 참여도의 차이를 보면 남·여 학생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3. 가정생활 참여도에 영향력 있는 관련 변인의 분석 (표 4, 표 5)

전체 가정생활 참여도와 하위영역별 즉, 가사노동,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여가활동, 가정행사, 가정규칙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 대해 분석 하기 위해 학교환경변인, 가정환경변인, 가정교과 선호도, 성역할 태도를 독립변인, 하위영역별 및 전체 가정생활 참여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다.

전체 가정생활 참여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을 보면, 남학생은 생활수준($\beta = -.30$), 가정교과 선호도($\beta = .26$)에 의해 종속 변인의 총 분산을 20% 설명할 수 있으며, 여학생은 가정교과 선호도($\beta = .21$), 학년($\beta = -.21$), 형제순위($\beta = -.17$), 모의 학력($\beta = .17$), 생활수준($\beta = .13$) 변인에 의해 종속 변인의 총 분산을 22% 설명할 수 있다. 즉, 남학생은 생활수준과 가정교과 선호도가 높을수록, 여학생은 가정교과 선호도와 생활수준이 높고, 만이 이고 저학년이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생활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수준과 가정교과 선호도는 남녀학생 모두에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하위 영역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력 있는 변인을 보면, 남학생은 가정교과 선호도($\beta = .34$)에 의해 종속변인의 총 분산을 12% 설명할 수 있으며, 여학생은 학년($\beta = -.22$), 가정교과 선호도($\beta = .20$), 어머니의 직업유무($\beta = -.15$)에 의해 종속변인의 총분산을 13% 설명할 수 있다. 즉, 남학생은 가정교과 선호도가 높을수록, 여학생은 저학년일수록, 가정교과 선호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직업이 있을 때 가사노동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참여에 영향력 있는 변인을 보면, 남학생은 생활수준($\beta = -.32$)에 의해 종속 변인의 총분산을 10% 설명할 수 있으며, 여학생은 가정교과 선호도($\beta = .21$), 모의 학력($\beta = .18$)에 의해 종속변인의 총분산을 8% 설명할 수 있다. 즉, 남학생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여학생은 가정교과 선호도와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내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력 있는 변인을 보면, 남학생은 학년($\beta = -.32$), 생활수준($\beta = -.20$),

(표 3) 가정환경 변인, 가정교과 선호도, 성역할 태도에 따른 가정생활 참여도의 차이

			가정 생활 참여도											
			가사노동		의사소통및 의사결정		여가활동		가정행사		가정규칙의 준수		전체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형제 순위	남	첫째	3.36		3.31		3.31		3.78		3.41		3.33	
		둘째	3.26		2.92		2.93		3.68		3.31		3.18	
		셋째	3.35	.37 ^{N S}	3.13	3.20*	2.63	3.90**	3.76	.78 ^{N S}	3.54	1.47 ^{N S}	3.26	1.49 ^{N S}
		넷째이상	3.47		2.74		2.50		3.44		3.74		3.19	
	여	첫째	3.21		3.34		3.34		3.78		3.69		3.40	
		둘째	3.29		3.23		3.04		3.56		3.64		3.31	
		셋째	3.47	1.88 ^{N S}	3.28	.54 ^{N S}	2.68	5.78***	3.54	2.66*	3.42	1.18 ^{N S}	3.30	1.02 ^{N S}
		넷째이상	3.23		3.04		2.67		3.07		3.50		3.12	
아버지 학력	남	국졸	3.61		3.24		2.85		3.47		3.17		3.22	
		중졸	3.52		2.63		3.06		3.52		3.10		3.14	
		고졸	3.21	2.31 ^{N S}	3.01	1.64 ^{N S}	2.77	4.71***	3.52	5.63***	3.40	1.47 ^{N S}	3.14	4.18**
		전문, 초급대 대졸이상	3.09		3.17		3.00		3.91		3.54		3.27	
	여	국졸	3.39		3.00		2.65		3.78		3.38		3.24	
		중졸	3.49		3.27		2.79		3.88		3.80		3.43	
		고졸	3.26	1.02 ^{N S}	3.25	.72 ^{N S}	3.05	2.83*	3.60	.56 ^{N S}	3.50	1.92 ^{N S}	3.31	.47 ^{N S}
		전문, 초급대 대졸이상	3.33		3.29		3.30		3.76		3.58		3.40	
어머니 학력	남	국졸	3.40		2.94		2.67		3.34		3.00		2.94	
		중졸	1.28		2.81		2.30		3.38		3.33		3.05	
		고졸	3.29	.89 ^{N S}	3.19	1.71 ^{N S}	3.12	6.11***	3.75	5.89***	3.44	1.56 ^{N S}	3.31	6.11***
		전문, 초급대 대졸이상	3.09		2.97		3.02		3.73		3.60		3.19	
	여	국졸	3.49		3.02		2.35		3.56		3.67		3.24	
		중졸	3.26		3.11		2.73		3.67		3.41		3.22	
		고졸	3.21	1.10 ^{N S}	3.24	4.05**	3.05	8.21***	3.58	.99 ^{N S}	3.53	3.88**	3.29	3.42**
		전문, 초급대 대졸이상	3.48		3.06		3.38		3.47		3.96		3.43	
생활 수준	남	상	3.56		3.66		3.67		4.30		3.87		3.70	
		중상	3.30		3.17		3.28		3.76		3.55		3.35	
		중	3.28	1.35 ^{N S}	2.98	4.21**	2.86	6.73***	3.61	4.43**	3.26	4.61***	3.15	8.82***
		중하	3.14		2.92		2.26		3.56		3.21		3.05	
	여	상	3.40		3.69		3.83		3.80		4.08		3.67	
		중상	3.41		3.54		3.63		3.90		3.81		3.58	
		중	3.15	3.86**	3.10	5.90***	2.86	15.69***	3.49	3.61**	3.48	4.39**	3.18	10.46***
		중하	3.51		3.43		2.47		3.74		3.57		3.37	
		3.67		2.78		3.42		3.10		3.00		3.28		

아버지	남	전문직	3.38		3.39		3.13		3.62		3.55		3.36	
		생산관리직	3.25		3.22		3.42		4.00		3.65		3.38	
		사무직	3.55		3.30		3.32		3.97		3.49		3.40	
		판매직	3.23	1.21 ^{N S}	3.11	1.16 ^{N S}	2.78	3.09 ^{**}	3.75	4.22 ^{***}	3.24	2.31 [*]	3.22	2.83 [*]
		서비스직	3.39		2.92		2.72		3.41		3.21		3.11	
		생산기능직	3.22		3.14		2.96		3.57		3.32		3.14	
		어머니	여	전문직	3.31		3.63		3.60		3.89		3.84	
생산관리직	3.15				3.35		3.26		3.59		3.62		3.32	
사무직	3.24				3.14		3.17		3.60		3.59		3.31	
판매직	3.20			1.62 ^{N S}	3.13	2.49 [*]	2.68	3.66 ^{**}	3.62	.79 ^{N S}	3.54	.84 ^{N S}	3.22	1.86 ^{N S}
서비스직	3.48				3.30		2.96		3.65		3.50		3.38	
생산기능직	3.38				3.54		3.25		3.86		3.78		3.50	
가정교과 선호도	남			유	3.34		3.06		2.82		3.67		3.29	
		무	3.25	1.22 ^{N S}	3.11	-.56 ^{N S}	3.01	-1.65 ^{N S}	-1.13 ^{N S}	3.51	-2.13 [*]	3.28	-.73 ^{N S}	
		유	3.37		3.27		2.99		3.63		3.54		3.34	
	여	유	3.20	2.31 [*]	3.32	-.49 ^{N S}	3.24	-2.18 [*]	-1.47 ^{N S}	3.68	-1.60 ^{N S}	3.70	-.18 ^{N S}	
		무	3.20		3.32		3.24		3.68		3.70		3.35	
		5-11점	2.94		3.12		2.77		3.16		3.18		3.01	
성역할 태도	남	12-18점	3.31	10.78 ^{***}	3.16	.07 ^{N S}	3.06	2.96 [*]	3.95	12.02 ^{***}	3.43	5.46 ^{**}	3.33	7.93 ^{***}
		19-25점	3.55		3.10		3.29		4.03		3.79		3.50	
		5-11점	3.10		3.08		2.84		3.49		3.50		3.15	
	여	12-18점	3.31	7.38 ^{***}	3.31	7.42 ^{***}	3.20	7.80 ^{***}	3.70	3.14 [*]	3.65	3.07 [*]	3.38	13.02 ^{***}
		19-25점	3.51		3.64		3.51		3.87		3.86		3.63	
		13-30점	3.39		3.15		2.88		3.69		3.33		3.29	
성역할 태도	남	31-47점	3.28	.96 ^{N S}	3.03	.72 ^{N S}	2.85	2.05 ^{N S}	3.72	.05 ^{N S}	3.36	2.14 ^{N S}	3.22	.67 ^{N S}
		48-65점	3.25		3.13		3.14		3.72		3.61		3.31	
		13-30점	3.24		3.31		3.13		3.65		3.60		3.33	
	여	31-47점	3.38	1.89 ^{N S}	3.24	.17 ^{N S}	3.11	.54 ^{N S}	3.65	.81 ^{N S}	3.69	1.91 ^{N S}	3.38	1.33 ^{N S}
		48-65점	3.65		3.42		3.63		4.20		4.35		3.75	

형제순위($\beta = -.17$)에 의해 종속변인의 총분산을 25% 설명할 수 있으며, 여학생은 생활수준($\beta = -.26$), 모의 학력($\beta = .26$), 형제순위($\beta = -.24$), 학년($\beta = -.21$)에 의해 종속변인의 총분산을 33% 설명할 수 있다. 즉, 남학생은 저학년이며 생활수준이 높고 만이 일수록, 여학생은 생활수준과 모의 학력이 높고 만이이며 저학년일수록 가족과 함께 여가 활동에 참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수준, 형제순위, 모의 학력은 남녀학생 모두에서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가정행사 참여에 영향력 있는 변인을 보면, 남학생은 학년($\beta = -.33$), 가정교과 선호도($\beta = .30$), 가정교과 이수여부($\beta = -.20$)에 의해 종속 변인의 총분산을 30% 설명할 수 있으며, 여학생은 학년($\beta = -.28$), 형제순위($\beta = -.22$)에 의해 종속변인의 총분산을 13% 설명할 수 있다. 즉, 남학생은 저학년이고, 가정교과 선호도가 높고, 가정교과를 이수한 경우, 여학생은 저학년이고 만이 일수록 가정행사 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4) 가정생활 참여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을 보면, 남학생은 생활수준($\beta = -.30$), 가정교과선호도($\beta = .26$)에 의해 가정생활참여도의 총분산을 18% 설명할 수 있으며 여학생은 가정교과선호도($\beta = .21$), 생활수준($\beta = -.13$), 형제순위($\beta = -.17$), 학년($\beta = -.21$), 모의 학력($\beta = .17$)에 의해 가정생활 참여도의 총 분산을 22% 설명할 수 있었다. 결국 남·여학생 공통적으로 생활수준과 가정교과 선호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 참여도가 높으며, 이들 두 변인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상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남학생과 저학년의 가정교과 선호도가 높음을 볼 때 6차 교육과정에서의 남녀 공수의 합당성과 적절성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사료되며, 고학년일수록 입시위주의 편파적인 교육으로 인하여 가정교과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되므로 전인적인 교육환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의 가정생활 참여도가 높으나 가정교과를 이수한 남학생과 저학년의 참여도는 높게 나타났으므로 남학생들의 가정과 교육이 가정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과 동시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남녀공수 확대 실시가 필요함을 입증해주는 결과라 생각한다.

3) 가정생활 참여 하위영역별로 볼 때 전반적으로 가사노동,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여가활동의 참여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최근 입시위주의 교육과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과잉 보호에서 벗어나 자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훈련이 필요하며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공유함으로써 가족간의 유대감의 강화와 청소년 문제의 해결 및 나아가 가정의 질적 향상에 기여 하리라고 생각된다. 동시에 중등학생들의 가정생활 참여는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키워 줄 뿐 아니라 청소년 시기의 가정생활의 경험이 미래의 바람직한 가정상의 확립과 가족원의 역할 의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하며, 이것은 학교 교육에서의 가정과 교육 내용의 개발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뿐 아니라 부모들의 가정에서의 교육이 병행 될 때 더욱 실효를 거두리라 사료된다.

4) 가정생활 참여도에 영향력 있는 공통적인 변인이 생활수준과 가정교과 선호도임을 고려할 때 각 가정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의 개발과 관리에 주력 해야 함은 물론 학교 교육에서의 가정과 교육의 파급효과가 크므로 가정과 교육내용과 교수 학습 방법의 개발, 정상적인 가정과 교육을 위한 수업 시수와 실습여전들의 교육 환경의 개선은 물론, 관련자들의 지원이 적극 요청된다.

5) 미래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관련 변인의 탐색과 조사대상의 확대, 도시, 농촌 지역간의 비교 등의 심층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1) 이금, 박옥임, 이정주(199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6-25
- 2) White, L. K. & Brinkerhoff, D. B.(1981), "Children's work in the family: Its significance and Mean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4, 789~798
- 3) Goodnow J. J.(1988), "Children's household work : Its nature and func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3-1, 5~26
- 4) 5) 6) White, L. K. & Brinkerhoff, D. B., op. cit., 781-789
- 7) Manke, B., Seery, B. L., Crouter, A. C. and McHale, S. M.(1994), "The Three corners of domestic labor : Mother', fathers', and childrens' weekday and weekend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657~668
- 8) Cogle, F. L., Tasker, G. E. and Morton, D.G. (1982), "Adolescence time use in household work," *Adolescence*, 17-66, 451~455
- 9) McHale, S.M., Bartko, W.T., Crouter, A.C. and Jenkins, M.(1990), "Children's housework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s' sex role behaviors and attitudes," *Child Development* 61, 1413~1426
- 10) Sanik, M.M. & Stafford, K.(1985), "Adolescents' contribution to household production : male and female differences," *Adolescence*

- 20-77, 207~215
- 11) Lovett, S.D. & Abdel-Ghany, M.(1988), "Children's contributions to household activities in single-parent and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2, 199-204
 - 12) 이정덕(1991),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변화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203-221
 - 13) 문숙재, 강이주(1984), "청소년의 생활양식유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2-3, 149~159
 - 14) Sanik, M.M. & O'Neil, B.(1982), "Who does the family work?," *Journal of Extension* 20, Nov./ Dec., 15~20
 - 15) Ducan K.A. & Sanik, M.M.(1991), "Nine-nation typology : application to adolescent time us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5, 275~286
 - 16) O'Neil, B.M.(1979), "Children sharing," *Human Ecology Forum* 10, 18~21
 - 17) Cogle, F.L., Tasker, G.E. & Morton, D.G., op. cit., 452-454
 - 18) Lovett, S.D. & Adbel-Ghany, M., op.cit., 199
 - 19) Cogle, F.L. & Tasker, G.E.(1982), "Children and housework," *Family Relations* 31, 395~399
 - 20) Propper, A.M.(1972),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Employment to Adolescent Roles, Activities, and Parent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 417~421
 - 21) Key R.J., & Sanik M.M.(1990), "The Effect of homemaker's employment status on children's time allocation in single-and two-parent familie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1, 71~88
 - 22) Ducan, K.A., & Sanik.M.M., op. cit., 276
 - 23) 박형숙, 신효식(1989),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어머니의 여가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5~30
 - 24) 이정우, 김규원(198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유형 및 만족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147~159
 - 25) 신현자, 김기남(1991), "가정교과학습을 통한 남학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 49~59
 - 26) 고현숙, 김기남(1989), "여고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내용의 활용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1, 19~31
 - 27) 온성숙, 이전숙(1988), "중학교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4-1, 31-41
 - 28) Osmond, M.W., & Martin, P.Y.(1975), "Sex and sexism :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 744~758
 - 29) Brogan, D., & Kutner, N.G.(1976), "Measuring sex-role orientation : A normative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31~40
 - 30) Swagler, R., Sweaney, A., & Marlowe, J. (1989), "Children participation in household tasks as portrayed by national television advertisements in the U.S.A.,"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3, 271~283
 - 31) 최동숙(1989), "대학생의 가정생활의식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논문집 사회과학연구* 27, 157~174